

지난주일(11월13일) 설교 발췌

제목: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 (눅 21:10~13)

지난 화요일 밤, 그러니까 11월 8일 밤에 몇 시간에 걸친 월식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던 저녁 6시 직후부터 끝나가던 밤 9시까지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월식 현상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 일어납니다. 달이 중간에 있으면 일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대략 1억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인 빛의 속도로 8분 20초 걸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대략 38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대략 1.3초 걸립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대략 4백 배 됩니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이고, 표면적은 11,900배이고, 크기는 1,300,000배라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거기서 오는 빛으로 지구에는 생명 현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행성에도 태양 빛이 오지만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서 생명 출현이 어렵습니다. 지구가 최적의 거리에 놓여있습니다. 태양 빛을 조금 더 많이 받거나 조금 덜 받으면 지구에 생명은 사라질 겁니다. 태양은 우주의 여러 별과 똑같은 별입니다. 별은 생겼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태양은 45억 살 정도 되었고, 앞으로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붉은 거성으로 변했다가 불꽃놀이에서 보듯이 조금 후에 사라집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면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현대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피합니다. 태양이 끝나기까지는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며,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과학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외의 장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과학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일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옮겨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까지의 거리는 최소 2광년입니다. 영화에서는 우주여행이 가능한 지름길인 '웜홀'이 언급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한 에너지와 무한 질량의 물질이 있어야만 빛 속도를 낼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는데, 지구에는 그런 물질이 없습니다. 제가 우주과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상식적인 우주과학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전체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무궁하지 않다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묵시 사상의 관점이 '팩트'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유효한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실제로 믿으십니까? 그 이유와 근거를 친구나 가족에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11월20일
창조절 열두째 주일
(추수감사절)
세계 교회력 「다」해 52주

♣ 오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개역개정), Rejoice in the Lord alway: and again I say, Rejoice.(KJV) (빌 4:4)



2016년 11월29일 자 대구 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다. 올린 이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인 교포로 닉네임은 '에베슈'다. 본인이 사는 마을의 가을 풍경으로 보인다. 세상 만물이 쉼 새 없이 변한다는 사실은 다른 계절에도 느끼지만, 가을에는 더 실감 난다. 사람도 그렇게 변해간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간식 및 친교 : 5:00-5: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http://dabia.net/xo/churchs>

주일공동예배순서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구원의 능력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거룩한 도반들입니다.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3,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세력도,
그리고 그 어떤 이념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 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온갖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여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구의 먹을거리들이 우리 눈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일에 비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Sanctus) ... 다 함께



거룩하 - 시다 거룩하 - 시다 거룩하시도 - 다
만군의 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그영광

[알리는 말씀]

- * 오늘은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도시에 사는 이들만이 아니라 시골에 사는 분들도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곡식을 심고 키우고 거두는 일을 우리 삶과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예배 후에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오늘(11월 20일)로 2021-2022 교회력이 끝나고 다음 주일인 11월27일부터 2022-2023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이 이어지고,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주일과 성탄절이 겹쳤습니다.
- * 12월 4일에는 서울샘터교회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운영진에 관한 위임을 부탁드립니다.
- * 지난주일(11월13일) 헌금: 360,000원(주일헌금 30,000원, 통장헌금 33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 11월, 1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1월20일	박재진목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1월27일	이춘우목사	이유선집사	양혜선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12월 4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사회) 이기령(봉독)	양혜선집사	최선아,박정덕/시청각실
12월11일	이춘우목사	고중홍집사	이기령집사	오미영,이유선/아트컬리지5
12월18일	박재진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2월25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동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열두째 주일이자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며,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 위축,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아뢴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하 - 늘 높 은 곳 - 에 는 하 나님 께 영 - 광영 광
 땅 위 에 는 그 - 의백 성 들 - 에 게 평 화 - 평 화
 주 하 나님 - 왕 - 의 왕 전 능 하신 하 - 나님 께
 감 사찬 양 드 리 나 이 다 영 - 광 을 드 립 - 니 다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가락」 189장 (하늘 나는 새를 보라) ... 다 함께

민로아(F. S. Miller)

나영수



1.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2.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길쌈수고 안해도
3. 너는 면저 주의나라 주의의를 구하라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곡슬로 몬의 의복 보다가 너 옥아름답도다
하 나 님 이 모 든 것 을 너 회 에 게 주 신 다



하늘 계신 아버지가 고 이 먹 여 주시니
아 궁 속 에 던 질 풀 도 고 고 이 입 혀 시 거 늘
내 일 일 을 생 각 하 고 미 리 염 려 말 아 라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으라
오늘 일 만 생 각 하 고 있는 힘을 다하라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등 불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어두워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언어 장애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어(막 7:34)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신명기 26:1~11 ... 양혜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100:1~5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온땅이여 우리주께 환호성을 울리어라/ 마음속의 기쁨으로 우리주를 섬기어라
-기쁜노래 부르면서 주님앞에 나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지니라
그가우리 내셨으니 우리그의 것이로다/ 우리그의 백성이요 주께속한 양떼로다
-감사기도 드리면서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노래 부르면서 뜰안으로 들어가라
감사노래 부르면서 그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주님 선하시며 인자하심 영원하다/ 우리주님 성실하심 영원무궁 하리로다

둘째말씀 빌립보서 4:4~9 ... 양혜선 집사

*셋째말씀 요한복음 6:25~35 ... 양혜선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기쁨 충만, 가능한가? ... 박재진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1, 2절 ... 다 함께